

주간

2016. 10. 24. ~ 10. 30.

전남농업정보

108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쌀 수확기 속보
-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선버섯, 4년 만에 중국시장 본격 수출 재개
- 안성미춤 농산물 베트남 수출 박차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 쌀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기능성 쌀 눈큰흑찰이 대시증후군 위험 낮춘다

정책동향

- 스마트팜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세미나
- 방역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사업신청 및 홍보

- 곡성 박희애 농가,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쌀 수확기 속보
- ▶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광양시, 농산물 경쟁력 높이는 GAP 인증 확대 나서
- ▶ 담양군, '죽순 분말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 방법' 특허로 6차산업 활성화
- ▶ 곡성군, 건강식품 토란값 급등에 함박웃음
- ▶ 고흥군, 양파 생산비 절감기술 현장연사회 호응
- ▶ 보성군, 중국 호남성 흑차제다 교육 실시
- ▶ 해남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국비 공모사업 선정
- ▶ 장성군, 땅심 키우는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신선버섯, 4년 만에 중국시장 본격 수출 재개
- ▶ 안성마춤 농산물 베트남 수출 박차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수정재배에 적합한 연녹색계 폐포종 애호박 품종선발
- ▶ 국화 양액재배에서 점적관의 길이 설정
- ▶ 벼메뚜기 발육단계별 먹이량 및 식용을 위한 절식 시간
- ▶ 원예종묘 국제 품질인증제 도입 기반 구축
- ▶ 전남 쌀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 녹·홍차가 쌀과 만나 맛과 건강에 좋은 쌀파스타로 탄생
- ▶ 기능성 쌀 눈큰흑찰이 대사증후군 위험 낮춘다
- ▶ 감귤 재배,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 ▶ 토마토 풋마름병 막는 친환경 제품 개발
- ▶ 논(밭)두렁 지킴이 환경친화적 잡초 연구에 '박차'
- ▶ 생체지표 이용한 한우암소 수정적기 판별기술 개발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6

- ▶ 식생활교육전문가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8

- ▶ 스마트팜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세미나
- ▶ 방역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 ▶ 농업인 건강보호 위한 농약 노출 평가기술 선진화

❀ 해외 농업정보 42

- ▶ 중국 내 수입산 분유 수요 지속 증가
- ▶ 농촌진흥청, 파라과이에 KOPIA 시범마을 출범식 개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0. 3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4%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목요일 한주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 초반 다시 하락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두 달이래 최고 가격을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으로 전일 대비 다시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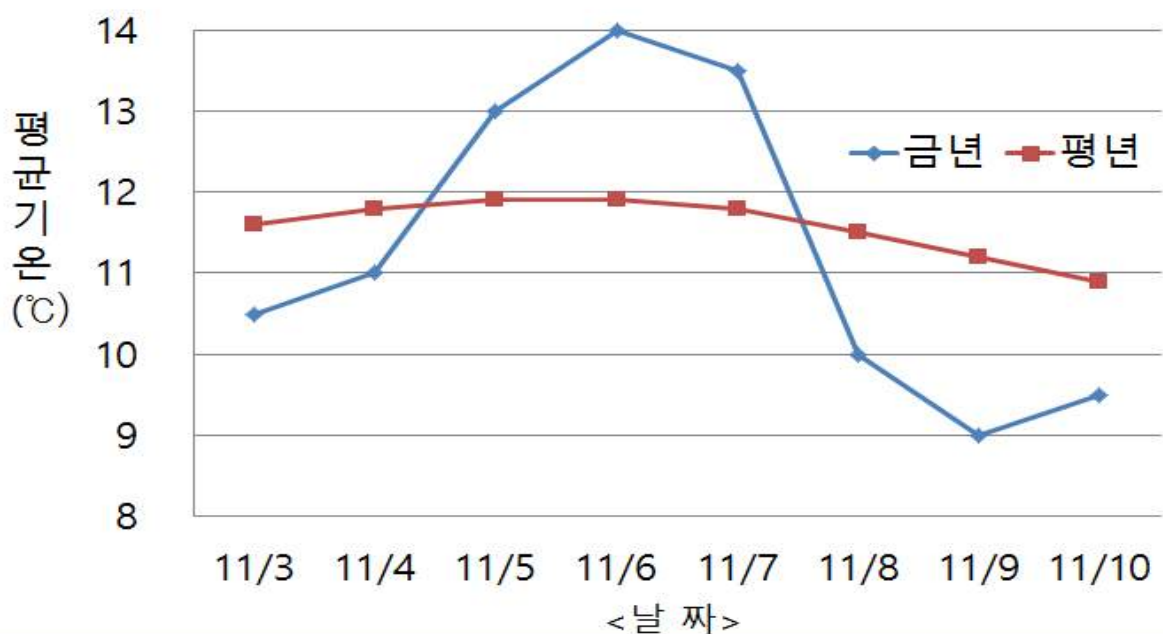
- ▶ 곡성 박희애 농가,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11.3 | 11.6 | -0.3 | 16.9 | 17.4 | -0.5 | 5.8 | 6.8 | -1.0 | 1.6 |
| 11. 03.(목) | 10.5 | 11.6 | -1.1 | 17.0 | 17.5 | -0.5 | 4.0 | 6.6 | -2.6 | 1.1 |
| 11. 04.(금) | 11.0 | 11.8 | -0.8 | 17.0 | 17.9 | -0.9 | 5.0 | 6.6 | -1.6 | 1.0 |
| 11. 05.(토) | 13.0 | 11.9 | 1.1 | 19.0 | 18.1 | 0.9 | 7.0 | 6.8 | 0.2 | 1.2 |
| 11. 06.(일) | 14.0 | 11.9 | 2.1 | 20.0 | 17.9 | 2.1 | 8.0 | 6.9 | 1.1 | 1.4 |
| 11. 07.(월) | 13.5 | 11.8 | 1.7 | 19.0 | 17.7 | 1.3 | 8.0 | 7.0 | 1.0 | 1.8 |
| 11. 08.(화) | 10.0 | 11.5 | -1.5 | 14.0 | 17.1 | -3.1 | 6.0 | 6.9 | -0.9 | 2.1 |
| 11. 09.(수) | 9.0 | 11.2 | -2.2 | 14.0 | 16.6 | -2.6 | 4.0 | 6.8 | -2.8 | 2.0 |
| 11. 10.(목) | 9.5 | 10.9 | -1.4 | 15.0 | 16.2 | -1.2 | 4.0 | 6.5 | -2.5 |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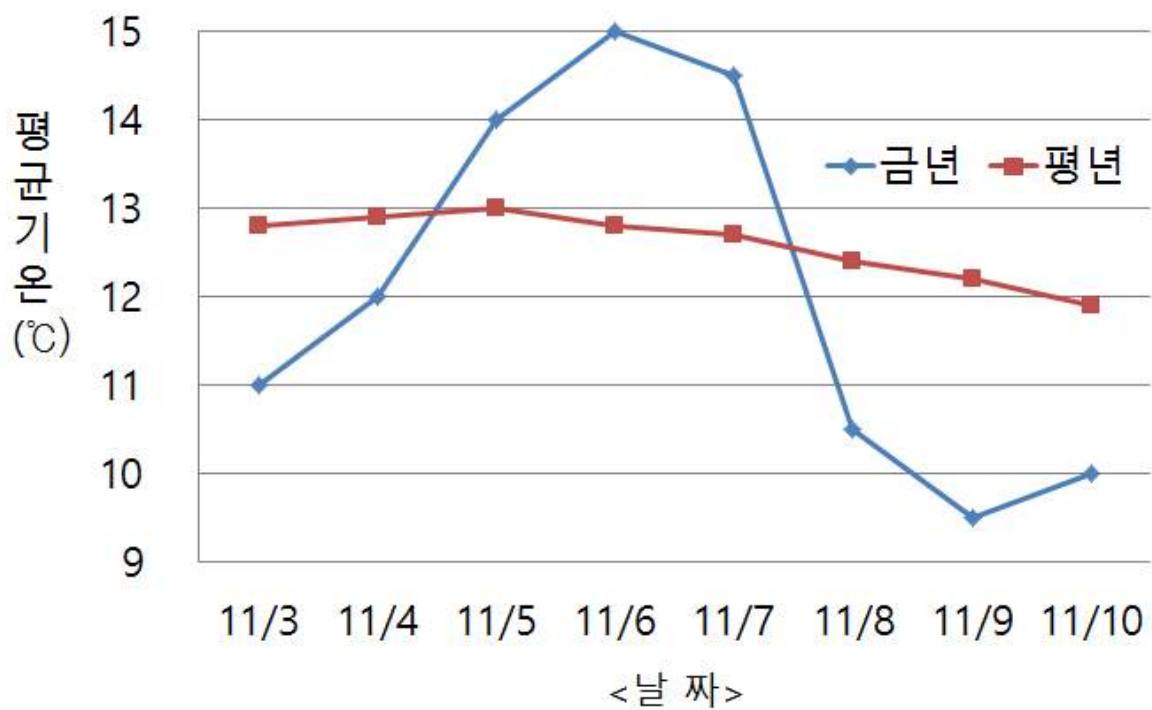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12.1 | 12.6 | -0.5 | 16.4 | 17.6 | -1.2 | 7.8 | 8.6 | -0.8 | 1.5 |
| 11. 03.(목) | 11.0 | 12.8 | -1.8 | 16.0 | 17.9 | -1.9 | 6.0 | 8.7 | -2.7 | 1.1 |
| 11. 04.(금) | 12.0 | 12.9 | -0.9 | 17.0 | 18.1 | -1.1 | 7.0 | 8.6 | -1.6 | 1.3 |
| 11. 05.(토) | 14.0 | 13.0 | 1.0 | 19.0 | 18.2 | 0.8 | 9.0 | 8.8 | 0.2 | 1.3 |
| 11. 06.(일) | 15.0 | 12.8 | 2.2 | 20.0 | 18.0 | 2.0 | 10.0 | 8.8 | 1.2 | 1.5 |
| 11. 07.(월) | 14.5 | 12.7 | 1.8 | 19.0 | 17.8 | 1.2 | 10.0 | 8.7 | 1.3 | 1.6 |
| 11. 08.(화) | 10.5 | 12.4 | -1.9 | 13.0 | 17.3 | -4.3 | 8.0 | 8.6 | -0.6 | 2.0 |
| 11. 09.(수) | 9.5 | 12.2 | -2.7 | 13.0 | 17.0 | -4.0 | 6.0 | 8.4 | -2.4 | 1.7 |
| 11. 10.(목) | 10.0 | 11.9 | -1.9 | 14.0 | 16.6 | -2.6 | 6.0 | 8.1 | -2.1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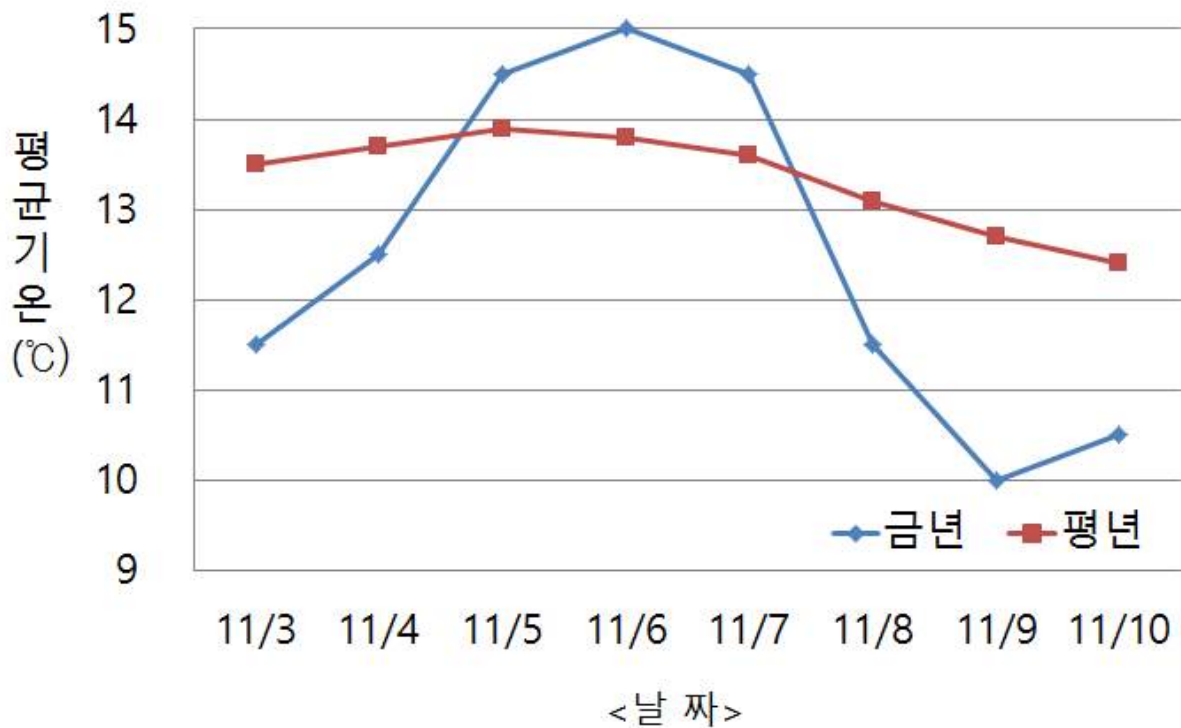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12.5 | 13.3 | -0.8 | 16.3 | 17.1 | -0.9 | 8.8 | 10.2 | -1.4 | 1.4 |
| 11. 03.(목) | 11.5 | 13.5 | -2.0 | 16.0 | 17.5 | -1.5 | 7.0 | 10.1 | -3.1 | 1.3 |
| 11. 04.(금) | 12.5 | 13.7 | -1.2 | 17.0 | 17.6 | -0.6 | 8.0 | 10.3 | -2.3 | 1.2 |
| 11. 05.(토) | 14.5 | 13.9 | 0.6 | 19.0 | 17.8 | 1.2 | 10.0 | 10.6 | -0.6 | 1.2 |
| 11. 06.(일) | 15.0 | 13.8 | 1.2 | 19.0 | 17.5 | 1.5 | 11.0 | 10.6 | 0.4 | 1.5 |
| 11. 07.(월) | 14.5 | 13.6 | 0.9 | 18.0 | 17.3 | 0.7 | 11.0 | 10.5 | 0.5 | 1.5 |
| 11. 08.(화) | 11.5 | 13.1 | -1.6 | 14.0 | 16.8 | -2.8 | 9.0 | 10.1 | -1.1 | 1.7 |
| 11. 09.(수) | 10.0 | 12.7 | -2.7 | 13.0 | 16.4 | -3.4 | 7.0 | 9.7 | -2.7 | 1.4 |
| 11. 10.(목) | 10.5 | 12.4 | -1.9 | 14.0 | 16.0 | -2.0 | 7.0 | 9.3 | -2.3 | 1.6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쌀 수확기 속보

□ 벼 재배면적 단수 감소로 금년 쌀 예상생산량 전년 대비 2.9% 감소
(통계청 10.7.발표)

○ 2016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6%(2만 610ha) 감소한 77만 9천ha

○ 금년 쌀 예상 단수는 10a당 540kg으로 전년 대비 0.4%(2kg) 감소, 벼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금년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 대비 2.9%(12만 5천톤) 감소한 420만 2천톤

○ 2016년산 쌀 예상 생산량 (자료 : 통계청)

| 구 분 | 2015년산(A) | 2016년산(B) | B-A | B/A(%) |
|------------|-----------|-----------|------|--------|
| 면적(천ha) | 799 | 779 | -21 | -2.6 |
| 단수(kg/10a) | 542 | 540 | -2 | -0.4 |
| 생산량(천톤) | 4,327 | 4,202 | -125 | -2.9 |

○ 2015년산 쌀값의 역계절진폭(-8.1%) 발생과 산지유통업체의 구곡 재고부담 등으로 신곡 가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10월 15일 기준, 2016년산(신곡) 쌀 가격은 13만 1,808원/80kg으로 전년 대비 16% 낮은 수준

□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역 벼 수발아 피해 집중 발생

○ 추석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약 1만 4,823h(10.24.기준) 벼 수발아 피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전남지역의 수탈아 피해면적은 1만 1,216ha로 전체 피해면적의 대부분(75.7%)을 차지하였고, 이는 전남 논벼 재배면적(16만 5,750ha)의 약 6.8% 수준임
 - 피해품종은 신동진·새일미·히토메보레 등이 대부분 차지
- 수탈아가 발생한 벼의 경우, 품질하락으로 인해 식용으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종자이용으로도 불가능함

<2016년산 수탈아 피해 낱알(전남 영암군)>



- 수탈아 피해, 신·구곡 시장격리 등으로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량보다 줄어듦 것으로 전망
-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수탈아 피해가 발생하여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을 예상됨
 - 정부는 신곡수요 초과물량 중 25만톤을 우선 매입 실시하고,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 중순)에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할 계획임
 - 또한,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으로 등숙률 및 제현율도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산지유통업체에서는 가격하락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육우 사육과 가격전망

□ (사육전망)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예상

- 12월은 전년 동월(268만 마리)보다 감소한 265만 마리(한우 252만 마리) 전망

□ (공급전망) 11~12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1~12월 도축은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가격전망) 1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10월 대비 약보합 전망

-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1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0월보다 약보합 전망
 -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단위 : 원/지육kg(만원/600kg)

| 구 분 | 10월 | 11월 | 12월 |
|-------|--------------|---------------|---------------|
| 2016년 | 18,317 (656) | 10월 대비 약보합 예상 | 11월 대비 약보합 예상 |
| 2015년 | 18,836 (677) | 18,081 (650) | 17,431 (626) |
| 평 년 | 14,220 (511) | 13,901 (500) | 13,861 (498)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0. 31. 기준/단위 : 원)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10/31) | 1주일전 (10/24)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식 작 물 | 쌀(일반계) | 20kg | 29,000 | 29,000 | 31,760 | 36,750 | 41,067 | ↓ 21.1 | ↓ 29.4 |
| | 콩(백태) | 35kg | 152,000 | 152,000 | 152,000 | 143,700 | 179,967 | ↑ 5.8 | ↓ 15.5 |
| | 고구마(밤) | 10kg | 25,000 | 25,400 | 26,000 | 21,800 | 22,013 | ↑ 14.7 | ↑ 13.6 |
| | 감자(수미) | 20kg | 26,000 | 26,000 | 25,040 | 24,900 | 24,433 | ↑ 4.4 | ↑ 6.4 |
| 채 소 류 | 배추(고랭지) | 1kg | 740 | 800 | 1,824 | 383 | 444 | ↑ 93.2 | ↑ 66.7 |
| | 양배추 | 10kg | 10,200 | 10,600 | 9,340 | 4,025 | 5,187 | ↑ 153.4 | ↑ 96.6 |
| | 오이(다다기계통) | 10kg | 24,333 | 14,333 | 28,867 | 20,167 | 18,307 | ↑ 20.7 | ↑ 32.9 |
| | 애호박 | 8kg | 19,200 | 17,600 | 23,080 | 15,950 | 17,953 | ↑ 20.4 | ↑ 6.9 |
| | 토마토 | 10kg | 33,600 | 36,200 | 34,960 | 17,300 | 26,680 | ↑ 94.2 | ↑ 25.9 |
| | 당근 | 20kg | 51,000 | 50,000 | 44,360 | 27,700 | 34,953 | ↑ 84.1 | ↑ 45.9 |
| | 건고추(화건) | 60kg | 584,000 | 584,000 | 624,000 | 816,000 | 918,667 | ↓ 28.4 | ↓ 36.4 |
| | 풋고추 | 10kg | 49,000 | 46,000 | 49,240 | 26,550 | 39,640 | ↑ 84.6 | ↑ 23.6 |
| | 마늘(깐마늘) | 20kg | 142,000 | 140,000 | 140,000 | 135,000 | 110,933 | ↑ 5.2 | ↑ 28.0 |
| | 양파 | 20kg | 19,600 | 19,600 | 18,600 | 28,550 | 19,773 | ↓ 31.3 | ↓ 0.9 |
| | 대파 | 1kg | 2,250 | 2,220 | 2,240 | 1,670 | 1,389 | ↑ 34.7 | ↑ 62.0 |
| | 파프리카 | 5kg | 23,600 | 29,000 | 24,360 | 13,000 | 26,347 | ↑ 81.5 | ↓ 10.4 |
| | 멜론 | 8kg | 25,000 | 25,000 | 20,160 | 18,400 | 22,280 | ↑ 35.9 | ↑ 12.2 |
| | 방울토마토 | 5kg | 26,200 | 28,000 | 26,960 | 10,200 | 15,680 | ↑ 156.9 | ↑ 67.1 |
| | 수박 | 1개 | 11,600 | 11,400 | 12,840 | 7,750 | 8,917 | ↑ 49.7 | ↑ 30.1 |
| 과 일 류 | 사과(후지) | 10kg | 37,800 | 38,200 | - | - | 39,947 | | ↓ 5.4 |
| | 배(신고) | 15kg | 35,400 | 35,400 | 39,040 | 38,500 | 35,860 | ↓ 8.1 | ↓ 1.3 |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10/31) | 1주일전 (10/24)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특용 작물 | 참깨(백색) | 30kg | 513,600 | 525,600 | 524,400 | 530,000 | 543,467 | ↓ 3.1 | ↓ 5.5 |
| | 느타리버섯 | 2kg | 13,800 | 13,200 | 13,240 | 10,900 | 11,740 | ↑ 26.6 | ↑ 17.5 |
| | 새송이버섯 | 2kg | 9,400 | 9,200 | 8,840 | 8,250 | 8,110 | ↑ 13.9 | ↑ 15.9 |
| 축 산 물 (소매가) | 쇠고기(한우등심) | 100g | 8,017 | 7,980 | 7,946 | 7,741 | 6,633 | ↑ 3.6 | ↑ 20.9 |
| | 돼지고기(삼겹살) | 100g | 1,932 | 1,974 | 2,041 | 1,709 | 1,572 | ↑ 13.0 | ↑ 22.9 |
| | 닭고기 | 1kg | 5,689 | 6,293 | 5,329 | 5,169 | 5,658 | ↑ 10.1 | ↑ 0.5 |
| | 계란(특란) | 30개 | 5,610 | 5,538 | 5,563 | 5,635 | 5,572 | ↓ 0.4 | ↑ 0.7 |
| | 우유 | 1리터 | 2,525 | 2,525 | 2,550 | 2,550 | 2,443 | ↓ 1.0 | ↑ 3.4 |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0. 31. 기준)

| 구 분 | | 금주가격 | 전주가격 | 1년전 | 등 락 률(%) | |
|----------------|----|----------|----------|----------|----------|--------|
| | | | | | 전주 대비 | 전년 대비 |
| 큰 소 (600Kg) | 암 | 5,672 천원 | 5,695 천원 | 5,882 천원 | ↓ 0.4 | ↓ 3.5 |
| | 거세 | 5,898 " | 6,350 " | 6,909 " | ↓ 7.1 | ↓ 14.6 |
| 송아지 (6~7월) | 암 | 2,842 " | 2,809 " | 2,690 " | ↑ 1.1 | ↑ 5.6 |
| | 수 | 3,403 " | 3,377 " | 3,357 " | ↑ 0.7 | ↑ 1.3 |
| 육우(600Kg) | | 2,936 " | 2,922 " | 3,508 " | ↑ 0.4 | ↓ 16.3 |
| 젖소수송아지(7일령) | | 333 " | 333 " | 312 " | - 0 | ↑ 6.7 |
| 돼지(110kg) | | 339 " | 354 " | 328 " | ↓ 4.2 | ↑ 3.3 |
| 육계(원/kg) | | 1,669 원 | 2,103 원 | 1,415 원 | ↓ 20.6 | ↑ 17.9 |
| 계란(원/특란10개) | | 1,224 " | 1,204 " | 1,193 " | ↑ 1.6 | ↑ 2.5 |
| 오리(원/kg) | | 1,667 " | 1,667 " | 2,333 " | - 0 | ↓ 28.5 |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729원/마리 (△831) * (5,658 - 2,332 + 3,403 = 6,729)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광양시, 농산물 경쟁력 높이는 GAP 인증 확대 나서

- 2025년까지 시중유통 농산물 50%까지 GAP 인증 농산물로 대체 -

- 광양시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GAP 면적 확대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50%까지를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로 대체해 나간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시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양 지역 12개 작목반, 228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의 필요성, 인증절차, 농약안전사용방법 등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GAP 인증을 받기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에 따른 행정지원과 인증신청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선별시설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 이에 광양시는 올해 인증 목표로 세운 300ha보다 135% 높은 407ha까지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인증품목도 밤·애호박·파프리카·골드키위·고사리·취나물·배·쌀 등으로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이병남 농산물유통팀장은 “지속적인 농가교육으로 GAP홍보를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 납품지원과 각종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면적 및 농가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죽순 분말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방법’ 특허로 6차산업 활성화

- 담양군이 죽순을 이용한 특허등록으로 지역 특산품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산물의 쓰임새 다양화와 소비 증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 죽순 분말을 첨가한 쌀국수 개발 공동연구에 착수해 10월 최종 특허등록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 ‘죽순분말을 이용한 쌀국수 제조방법’ 특허는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로써, 특허기술을 활용해 만든 죽순분말 쌀국수는 일반쌀국수에 비해 수분 흡수율과 조리 손실률이 낮으며 경도, 부착성, 점성, 탄성, 응집성 등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쌀국수 본연의 풍미인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차후 특허기술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해 상표를 출원하고 가공품을 가공·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지역특산품을 6차산업과 접목,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특허등록을 통해 죽순쌀국수와 기타 가공품을 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담양의 6차산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농·특산물 관련 가공 기술개발이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건강식품 토란값 급등에 함박웃음

- 토란 주산지로 자리잡은 곡성군이 최근 가격상승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명절 차례상과 제사 음식으로만 여겨지던 토란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토란 주산지인 곡성의 인기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채소화훼팀이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0kg 한 상자 기준 토란 가격이 9월 상순 추석 시기에는 2만 5천원에서 최근 10월 하순에는 3만원으로 5천원 가량 올랐다. 이는 최근 토란의 우수한 효능이 각종 언론에 소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끈 효과로 풀이된다.
- 토란의 인기 상승으로 전국에서 토란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곡성군도 잇따라 주요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 곡성의 토란 재배면적은 약 100ha로 전국 재배면적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곡성에서는 한해 2천톤 이상 토란을 생산해, 수도권 토란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곡성군은 토란인기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 최근 곡성토란향토사업단·곡성축협과 협약 맺고 ‘곡성 토란탕’ 음식을 새롭게 출시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고흥군, 양파 생산비 절감기술 현장 연사회 호응

- 양파 재배 기계화로 노동력 76%, 생산비 51% 절감 -

- 고흥군은 지난 26일 금산면 양파 포장에서 양파 생산비 절감기술 연사회를 개최해 양파 재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는 양파 재배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계화 작업 등을 통해 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 군은 양파 정식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양파 기계정식 시범사업으로 12ha의 면적에 기계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양파 재배는 전 작업의 41%를 인력에 의존하고 수확과 정식작업에 노동력의 75%가 들어가는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번 연사회에서 선보인 기계는 파종기 2종(4, 6조식), 전엽기(잎절단기), 피복기 2종(두둑성형+제초제살포+멀칭비닐 피복), 정식기 2종(4조식, 승용8조식) 등이다.
- 양파 기계화재배는 파종, 두둑형성, 비닐피복, 정식, 수확까지 기계화를 통해 관행재배 대비 노동력을 76%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계정식만으로도 인력정식에 비해 뿌리가 조기 활착되어 월동률을 높이고 수확량을 25% 증대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번 연사회에 참여한 (주)죽암기계는 2015년도에 전남형 강소기업에 선정되어 2년간 1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양파 파종기 국산화에 성공해 앞으로 양파 재배농가에 대한 기계 상용화 및 기술보급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중국 호남성 흑차제다 교육 실시

- 녹차수도 보성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 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성차의 세계화 및 다양한 차 제품 기술 습득을 위해 ‘중국 호남성 흑차제다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제다교육은 호남성 장사시에 위치한 세계 500대 기업의 중량 그룹인 호남중다다업유한공사에서 흑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 안화흑차를 중심으로 흑차제다기술 전수 및 다양한 중국 흑차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 앞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수받은 제다법으로 보성의 차맛을 활용하여 흑차제다교육을 추진하고, 중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다양한 차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 한 수강생은 “기존의 흑차제다법과 달리 호남성만의 새로운 제조 과정을 알게 되었으며, 한 모금 한 모금 넘기기 아까운 귀한 차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호남성과 차에 대한 기술 및 문화교류의 다양한 접근의 수업을 통해 보성의 차 산업에도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국비 공모사업 선정

- 2,000톤 규모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해남쌀 수급안정 기대 -

-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쌀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땅끝농협과 황산농협에 쌀 건조·저장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해남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에 따라 땅끝농협에는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0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과 원료투입 시설 등을, 황산농협 RPC에는 7억 9,000만원을 투입해 10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 땅끝 농협은 그동안 건조·저장시설이 없어 산물벼 수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농가 개별로 건조한 포대 벼만을 수매해왔으며, 황산농협의 경우 시설이 부족해 수매 벼를 야적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시설확충으로 수확기 벼 출하물량을 원활히 수용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해남쌀 고급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남 고급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해남군은 2016년에도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해남농협에 800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축하는 등 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땅심 키우는 “유기질비료” 지원

-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 -

- 장성군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친환경적 토양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부산물을 퇴비화한 비료로 토양의 이화학적 성을 개선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친환경 비료다.
-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포당(20kg)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는 2천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천 700원, 1등급 1천 600원, 2등급 1천 400원이다.
- 또한 3년마다 한번씩 공급하는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도 연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061-394-6662)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신선버섯, 4년 만에 중국시장 본격 수출 재개

- 불안정한 공급과 덤핑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막혔던 버섯 중국 수출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렸다.
- 우리 버섯은 지난해 3,663만달러를 기록한 신선농산물 수출 상위 품목이다. 쫄깃한 식감 등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중국 수출은 유독 미미한 편이다. 지난 2012년 팽이버섯의 주 수출국이었던 중국에서 수출물량 부족과 현지 도매상들의 무분별한 덤핑판매 및 거래선 중첩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4%(2,259만→1,686만달러)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중국의 버섯 재배기술 발달로 자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버섯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버섯이 4년 만에 다시 수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우리 버섯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aT 칭다오물류센터를 활용해 수출을 재개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10월 팽이버섯 7.1톤(1,400박스)을 칭다오로 선적하고 aT 칭다오물류센터에서 첫 입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중국 칭다오에 하역된 우리 버섯은 aT 칭다오물류센터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서부내륙도시인 청두와 충칭까지 신속하게 배송된 후, 현지 최고급 유통매장에 정식 입점돼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안성마춤 농산물 베트남 수출 박차

- 안성과수농협서 4만 1,000달러 규모 쌀·배 수출 선적 -

- 안성시는 최근 안성과수농협에서 4만 1,000달러 상당의 안성마춤 쌀과 신선 배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진행했다.
- 이번 안성마춤 특산물의 베트남 수출은 지난 1월 안성시와 안성마춤농협, 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등 3자간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베트남 K&K TRADING 측과 수출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 황은성 안성시장은 “농산물 소비부진과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성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수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안성시는 오는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한국·베트남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해 안성마춤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수출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수정재배에 적합한 연녹색계 폐포종 애호박 품종선발

□ 개발기술 내용

○ 수정재배에 적합한 연녹색 폐포계 품종 : 포벳

- 흰가루병 발병정도가 낮고, 관행 재배품종과 과 경도가 유사함
- 수량은 10,125kg/10a으로 관행애호박에 비해 26% 높았음
- 타 폐포계 품종에 비해 절간장이 길어 집게 고정 작업이 용이함
- 수정재배 시 덩굴쪼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

【연녹색계 폐포종애호박과 관행 재배품종의 생육 및 수량특성】

| 품 종 | 착과수 (개/주) | 상품과중 (g/주) | 상품과율 (%) | 상품수량 (kg/10a) | 수량 지수 | 흰가루병 발병정도 | 경도(g/2mm) | |
|-----------|--------------|---------------|-------------|------------------|----------|--------------|-----------|-----|
| | | | | | | | 과피 | 과육 |
| ISMALIA | 24.5 | 5,799 | 90.6 | 11,597 | 144 | 3 | 544 | 277 |
| FORVET | 20.2 | 5,062 | 93.9 | 10,125 | 126 | 1 | 640 | 345 |
| MILET | 21.7 | 5,347 | 88.8 | 10,695 | 133 | 5 | 513 | 274 |
| ARDENDO | 26.9 | 6,422 | 89.5 | 12,844 | 159 | 3 | 553 | 334 |
| 진한애호박(대조) | 13.9 | 3,796 | 94.6 | 8,030 | 100 | 3 | 608 | 408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애호박 주산단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선발품종 실증재배 추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수량 26%(8,030 → 10,125kg/10a), 노동시간 19% 절감
- 소득향상 : 2,723천원/10a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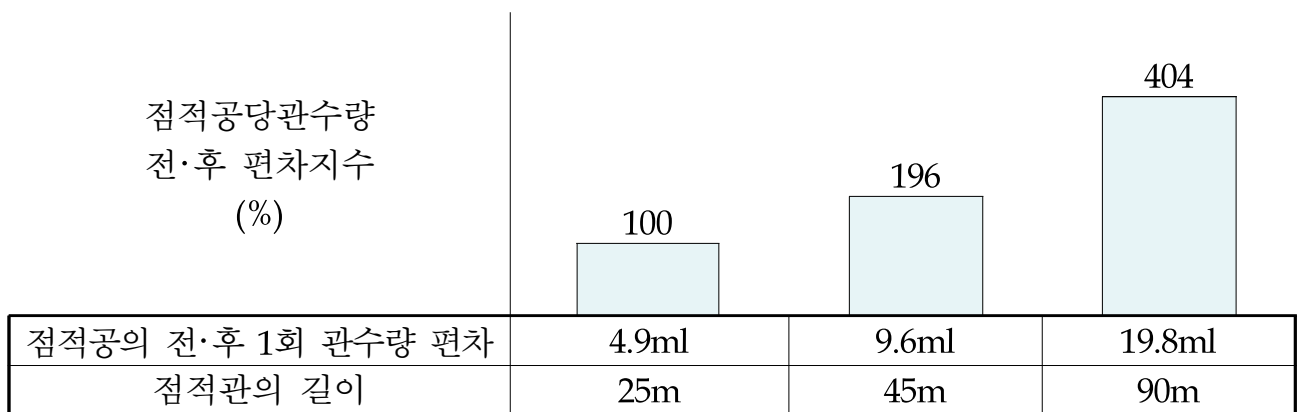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 국화 양액재배에서 점적관의 길이 설정

□ 개발기술 내용

- 국화 양액재배에서 점적관의 길이 25m에서 베드 내 점적관의 전·후 관수량의 편차가 적었음 : 90m대비 전·후 관수편차 74% 감소

【점적관의 길이에 따른 베드 내 점적공당 관수량 편차】



※ 점적관 규격 : 점적공의 시간당 공급량 1.05L/h, 점적공 간격 10cm

※ 관수방법 : 관수시간 2분, 주관의 관수압력 1.5kg/cm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국화 양액재배 농가 기술 보급 자료 활용
- 기타 원예작물의 양액 재배 및 토양재배의 관수자료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균일한 정밀 관수 기술 보급을 통한 절화 품질 균일화
- 국화의 규격품 생산량 증가 : 7,500본/10a (15%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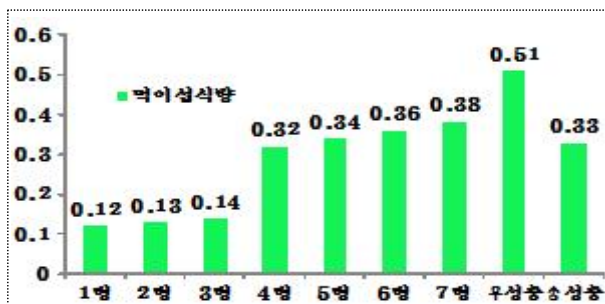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 벼메뚜기 발육단계별 먹이량 및 식용을 위한 절식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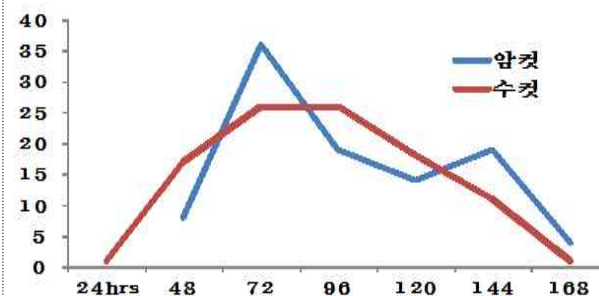
□ 개발기술 내용

○ 벼메뚜기 발육단계별 먹이량 및 식용을 위한 절식시간

- 벼메뚜기 연중생산을 위한 1일 1수당 먹이량은 1령 0.12 ± 0.04 , 3령 0.14 ± 0.03 , 5령 0.34 ± 0.09 , 7령 0.38 ± 0.07 , 암컷성충은 0.51 ± 0.13 , 수컷성충은 0.33 ± 0.07 g이 필요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36~48시간의 절식이 필요함



【발육단계별 1수당 먹이량(g)】



【벼메뚜기 절식시간별 폐사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2015년 사육 희망농가 중심 농가실증 사업 : 2농가
- 시범 사육농가 컨설팅 및 효과적인 먹이급여 기술지원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벼메뚜기 대량 사육 시 무차별 먹이공급에 의한 먹이량 절감
 - 관행사육 대비 57% 먹이 급여량 및 노동력 절감
 - 1일 10,000수 사육 시 관행급여 14,420 → 개선 6,214g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강성주

■ 원예종묘 국제 품질인증제 도입 기반 구축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딸기·장미 등 육성 신품종의 순도저하, 혼종, 고유특성 유지 곤란과 이병 모본 사용에 따른 병해충, 바이러스 증가 등으로 생산성 감소
- 딸기 등 영양체 원예종묘의 국제표준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종묘 수출과 원예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국내 육성 신품종 딸기 기본묘, 원원묘 등 우량묘 생산

□ 정책제안 내용

- 건의부처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건의내용 : 딸기 등 영양체 작물의 국제 표준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원예종묘 산업화 기반조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생산시설 구축
- 규모 및 예산 : 3개소 290억원



【딸기 원원묘 증식포】



【원예종묘 품질인증 체계 - Naktuinbouw】

□ 제도개선 반영 후 기대효과

- 딸기 우량묘 생산 및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 2,961억원
 - 딸 기 : 2,005억 = 6,435ha × 3,116천원/10a(소득 증가분)
 - 우량묘 : 956.2억 = 750ha × 12,750천원/10a(350 → 500원/주 증가분)
- 딸기 우량묘 신뢰성과 상품성 향상 : 10~21% 증
 - 수량(10a) : 일반묘(4,275kg) → 보급묘(4,711~5,165kg)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 전남 쌀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전남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식품 소재화 및 수출 발전방안 마련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10월 28일 국내 쌀 산업 환경변화에 연구·생산·가공 및 유통 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남 쌀산학협력단 관계자, 시·군 벼농사 담당자, 농업인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쌀 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최근 벼 과잉생산에 의한 수급 불안정, 벼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잦은 강우로 수탈아 및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하락 등으로 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주제로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전략”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제2주제 “미래의 전략식품으로써 쌀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제3주제 “수출 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생산 중심에서 품질향상과 가공 중심으로 기술개발 강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사업 육성, 쌀 수출 시범단지 육성과 더불어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녹·홍차가 쌀과 만나 맛과 건강에 좋은 쌀파스타로 탄생

- 녹·홍차 쌀파스타를 개발하여 도내 가공업체 기술지원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산 가루 녹·홍차를 이용해, 신세대 소비자 식품 선호 트렌드에 적합한 녹·홍차 쌀 파스타를 개발하여 도내 쌀 가공업체에 기술지원하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산업연구소는 기존에 음용하던 녹차나 홍차와는 다르게 건강 기능성을 활용한 웰빙 식품소재로 쌀과 접목하여 녹·홍차 파스타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국내산 쌀가루 77%에 녹·홍차 분말 3%와 점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찰보리가루와 전분 20%를 혼합하여 면을 제조했을 때 면이 끈적이지 않고 색과 맛, 향 등 기호성이 좋고, 호화·압출이 양호한 파스타면을 개발하였다.
- 녹차와 홍차에는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가바, 데아닌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항암, 항당뇨, 혈압상승억제, 체지방 감소, 피부미백 및 항염증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 쌀 소비 감소 원인의 하나로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체중 증가 현상이 많은 소비자의 생각인데 반해, 녹·홍차 쌀 파스타는 맛과 색, 건강기능성 뿐만 아니라 밀가루 식품 섭취 시 글루텐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웰빙식품이라 생각된다.
- 개발한 생면과 건면 녹·홍차 쌀 파스타 제품은 앞으로 도내 S 가공 업체와 D 가공업체에 기술 지원하여 시제품을 제조하고,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와 품질평가 후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기능성 쌀 눈큰흑찰이 대사증후군 위험 낮춘다

- 동물실험·인체복용시험 결과, 비만예방과 대사증후군에 효능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이 개발한 '눈큰흑찰'이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눈큰흑찰(2014)'은 일반미보다 쌀눈이 3배 정도 큰 검정색 거대 쌀눈쌀로, 눈큰흑찰 현미는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가바(GABA)가 일반 쌀보다 8배 이상 들어 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특수미의 건강기능성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아주대병원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 동물실험에서는 비만을 유도한 쥐를 3그룹(사료만 급여, 일반미 44% 함유 사료, 눈큰흑찰 44%함유 사료)으로 나눠 4.5~5g/일씩 14주간 먹인 뒤 체지방과 간의 무게, 인슐린, 그리고 중성지방을 측정했다. 그 결과, 눈큰흑찰 쌀을 먹인 쥐는 사료와 일반미를 먹인 쥐에 비해 체지방이 9.3%, 간 무게도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농도와 중성지질 함량도 낮았다.
- 또한 '눈큰흑찰'은 간의 DNA 손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됐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올해 국제학술지 JAFC(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등재됐다.
- 인체복용시험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38명을 대상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진행했다. 38명의 참가자 중 17명은 일반미를 21명은 눈큰흑찰을 먹었다. 하루 한 끼 눈큰흑찰 선식을 3개월 동안 먹은 결과, 먹기 전과 비교해 체중은 1.5kg, 총 지방은 0.9kg, 열량 섭취는 368kcal가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 특히 혈압이 8.2mmHg 줄었고 고감도반응성단백질(hsCRP)도 0.110mg/dl 감소하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 이러한 효능들은 '눈큰흑찰'에 함유된 가바(GABA), 아미노산, 감마오리자놀, 토코페롤,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눈큰흑찰이 성인병 발병에 관여하는 활성카보닐기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식량작물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눈큰흑찰 추출물은 대표적인 독성 활성카보닐기인 4-하이드로(4-HNE, 4-hydroxynonenal)의 생성을 25mg/ml에서 36.2%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냈다.
-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JMF(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등재됐으며 국내외 특허출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눈큰흑찰 관련 특허 17건을 출원·등록했으며, 4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선식·현미차·가바떡·커피 등으로 산업화했다.
- 눈큰흑찰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눈큰흑찰을 원료로 한 다양한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식품으로 눈큰흑찰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쌀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기능성 쌀 '눈큰흑찰미'



■ 감귤 재배,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 내륙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른 감귤 재배 교육 -

- 지구온난화에 따라 제주에서만 재배했던 감귤이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현재 내륙 지역의 감귤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24ha에 달했다. 비록 전체 제주 감귤 재배면적 21,000ha의 0.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제주 이외 지역의 재배면적은 전남 70.6ha(만감류 58.6, 노지감귤 12ha)로 가장 많고 경남 37.1ha(만감류 18.1, 노지감귤 19ha)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전북은 11.1ha 재배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역에서 감귤이 재배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내륙지역 감귤 재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올해는 전북 완주군과 경북 경산지역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연 4회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감귤의 분류 및 품종에 대한 기본 내용에서부터 감귤원의 양분 관리, 생리장해와 방제요령, 수확 전후 과실 품질관리 등 감귤재배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 전북 완주군에서 감귤 재배를 하고 있는 김운기 씨는 “육지에서 감귤 재배를 시도하면서 모르는 점들이 많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감귤 재배 및 병해충 방제 기술들을 배우게 돼 매우 유익했으며 감귤을 좀 더 제대로 재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 내륙지역에서의 감귤 재배는 대체로 화훼, 채소 시설재배를 하던 농가에서 새로운 새 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변형하면서 작목을 바꾸고 있다.
- 현재까지는 대체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 하우스 설치비는 별도로 들지 않지만,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가온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가 발생한다.
- 내륙에서 생산한 감귤은 주로 지역 로컬푸드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제주산 감귤과 비교해 당도 등 품질이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단가는 좀 더 높게 형성돼 있다.
- 충북 충주의 한 농가는 8년 전 7,934m²(2,400평) 규모에서 시설 토마토를 재배해 순소득이 7천 5백만원 정도였지만, 감귤 ‘레드향’으로 작목을 바꿨다.
- 지난해까지 5년째 과실을 수확했으며, 수막재배로 난방을 하는 등 생산경비를 제외하고 약 2억원 정도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어 내륙에서의 대표적인 감귤 재배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토마토 풋마름병 막는 친환경 제품 개발

- 노루궁뎅이버섯 배지 추출 물질 활용... 최대 81.1%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토마토에 발생하는 세균병인 풋마름병을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산업체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 풋마름병은 뿌리나 토양에 가까운 줄기 부위에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해 발생하는데, 감염이 되면 무기성분과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막혀 토마토가 푸른 채로 말라 죽는다.
- 시설 및 노지에서 이어짓기를 하면 발생이 증가하며 피해면적은 연 15~25% 정도지만 적절한 방제법이 없는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노루궁뎅이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배지에서 추출한 ‘복합다당체’ 물질을 이용한 것이다.
- 이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시제품을 5배로 희석해 뿌린 경우, 토마토 풋마름병에 대해 81.1%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 이 추출물은 토마토 풋마름병균 뿐만 아니라 식물병원곰팡이균에 대해서도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겹무늬병균에 대해서는 72.2, 잿빛곰팡이병균 23.1, 잎마름병 58.3, 시들음병균 70.4, 역병균 100, 잘록병균 46.6, 균핵병균 43.2% 등의 균사생육 억제율을 보였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노루궁뎅이버섯 수확 후 배지 추출물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기술’에 대해 2014년 10월 특허출원(10-2014-0144995)을 완료했다. 또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해 독성 시험을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등록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논(밭)두렁 지킴이 환경친화적 잡초 연구에‘박차’

- 잡초 잡는 잡초로 논둑관리 가능성 보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논(밭)두렁에 자라는 풀을 제초제 대신 관리할 수 있는 ‘잡초 잡는 잡초’ 20여종을 식재하여 환경 친화적인 논둑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보인 잡초들은 주로 농경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경이, 아욱메풀, 가락지나물, 이와다래소 등 피복식물과 야생화로 잘 알려진 제비꽃, 소엽맥문동, 벌개미취 등 밀원 및 경관식물들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논둑 잡초관리 방법이다.
- 금년도 벼농사 평가를 위해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농업인 3천여명은 벼 유기재배 논둑에 식재된 식물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논둑도 잡초로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물론 ‘우리 도 친환경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 논둑은 논과 논을 구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 기능 및 인축의 통로가 되는 농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생식물이 어우러져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관광 자원의 역할도 한다. 반면 논둑에 발생하는 자생잡초는 병해충의 서식처로 농작업의 불편을 초래하며 논 안으로 침입하여 벼 생육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도 많다.
- 논두렁에 발생하는 잡초는 피, 바랭이, 망초, 쇠뜨기, 쭉 등 26과 85종으로 초종도 다양하고 발생 시기도 달라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재배 논둑 잡초관리는 잔디를 심거나 피복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일년에 4회 이상 예취작업을 한다. 일반재배에서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2~3회 사용한다.

○ 문제는 혹서기에 경사지 등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예취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비선택성 제초제의 사용은 재배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논둑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의 자연경관과 친환경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권오도 박사는 “특정 식물만으로 논(밭)두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물생태와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잡초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경관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다”며 “2017년까지는 키가 작은 지피 및 경관용 다년생식물 선발과 대량생산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전남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생체지표 이용한 한우암소 수정시기 판별기술 개발

- 발정 특이 인자 발굴... 수태율 10~15% 개선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한우암소의 발정 분비물을 이용해 수정시기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발정 판별기술을 개발했다.
- 한우 인공수정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한우 번식률 향상의 필수 조건이다. 발정이 미약한 경우, 육안이나 CCTV 등 농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발정관찰 방법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
- 농촌진흥청은 인공수정 적기를 찾기 위해 한우암소 분비물에서 발정시기에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인자(락토페린과 GRIP-1)를 단백질 칩(ProteinChip)을 통해 동정하는데 성공했다.
- 실제 '락토페린'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상호작용 단백질1(GRIP-1)'은 일반적인 인공수정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자궁 상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이 발정 특이 인자들을 표식하는 단클론 항체를 제작했다. 이를 진단 키트화하면 기존 발정관찰 방법에 비해 수태율을 약 10~15%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발정시기 판별로 수정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기술은 발정의 행동 징후(승가)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달리 발정 시 생체에서 나타나는 인자를 포착하는 생물학적 진단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현재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가축의 번식(Reproduction in Domestic Animal)' 11월호에 게재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식생활교육전문가

□ 어떤 일을 하나요?

- 식생활교육전문가는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에절,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행동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는 일을 합니다.
- 이러한 교육 및 지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대상에 따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식생활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련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식생활 교육지원법’도 제정되었습니다.

| 사 업 명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바른(녹색) 식생활 체험학교 | 1,857 | 1,880 | 2,906 | 4,953 | 8,135 |
| 바른(녹색) 식생활 농어촌 체험과정 | 5,504 | 22,229 | 6,681 | 12,198 | 16,316 |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시범학교 | 3,855 | 14,684 | 11,558 | 32,798 | - |
| 식생활교육 박람회 | - | 15,000 | 23,000 | 24,635 | 30,000 |

자료 :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백서(농림축산식품부, 2015)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식생활교육 및 지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 | 기관명 | 지역 | 기관명 |
|------------|---|-----------|--|
| 서울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한살림 식생활교육센터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식문화연구원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두레생협 식생활교육센터 경희대학교식생활교육연구센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식생활시민학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한살림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당생명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강원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교육대학교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수동고을 영농조합법인 |
| | | 충북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충청대학교 |
| | | 충남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교육대학교 해전대학교 호서대학교 에코푸드연구소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 | | 전북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대학교 식생활교육기관 아이쿱 남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농업연수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
| | 부산 (3) | 전남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과학대학교 (사)전통우리음식진흥회 |
| | 대구 (2) | 경북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사단법인 나섬 경북대학교식품외식산업학과 동국대학교 생태교육원 |
| | 인천 (2) | 경남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교육대학교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대한영양사협회 경남영양사회 |
| | 광주 (2) | 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대학교 |
| | 대전 | | |
| 경기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명지대학교 자연사회교육원 아이쿱 율목생협 신흥대학교 경기농림진흥재단 | | |

자료 :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백서(농림축산식품부, 2015)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스마트팜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세미나

-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 농업활용을 위한 협업방안 모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연구·지도공무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련담당자, 관련 대학교수 및 업체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스마트팜 첨단기술 농업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팜 확산 및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원예·작물·축산·작물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협업연구 및 지도체계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 시설재배농가의 재배환경을 정밀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스마트팜은 농장관리, 병해충 예찰·진단 및 관리방법 생력화 분야 등과 방제 방법까지 기계화와 첨단화로 국제 경쟁시대에 진입하였다.
- 앞으로의 기술은 무인기를 활용한 원격 예찰, 진단, 자동화에 의한 생력화, 빅데이터 자동분석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의 편리성 등으로 연구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남농기원 원예연구소 황인택 ICT융복합 기술개발팀장은 다양한 분야로의 첨단기술 활용방법을 찾아가고 관련 산업체, 대학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진보된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방역 취약지역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11~12월에 전국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검사는 과거 구제역 발생 시·군(38개) 및 비 발생 시·군의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 아울러, 가축방역관 등이 일제검사를 위해 축산농장 출입 시에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검사를 통해서 방역 취약농가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돼지농가의 구제역 방역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제검사 대상농가에게 이번 일제검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축방역관 등이 시료채취를 위해 농장 출입 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축산농장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건강보호 위한 농약 노출 평가기술 선진화

- 농약 방제복 규격·피부흡수율 측정법 등 새롭게 확립 -
-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농약 노출 평가기술이 대폭 선진화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대학 및 연구소와 3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방제복 규격·피부흡수율 측정법·노출량 측정법 등을 새롭게 확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확립한 농약 방제복 규격은 농업인이 직접 농약을 뿌리는 작업환경 및 농약 방제복에 관한 국제규격을 고려해 농작업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성능과 더위를 막아주는 쾌적성능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 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기존에는 피부에 묻은 농약의 10%가 피부에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품형태에 따라 실제 피부투과율을 측정해 노출량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 농약노출량 측정법은 기존의 신체부위에 부착한 소형의 패치에 잔류한 농약을 분석하는 패치법에서 전신복장을 입고 농약을 뿌린 뒤 옷에 남은 농약을 분석하는 전신(복장)노출시험법으로 바꿨다.
- 패치법은 작은 표면적을 신체 표면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노출량을 과대평가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험법은 이를 보완해 보다 정밀한 노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새롭게 확립한 규격 및 시험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27일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평가기술 선진화’ 국제 심포지엄을 농약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에 확립한 농약방제복 규격·피부흡수율 측정법·노출량 측정법 등은 내부 평가와 농약업계의 의견을 모아 농약관리법 고시에 반영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박경훈 연구관은 “이번에 국내 환경에 맞춰 농약노출 평가방법이 보다 선진화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舊치법(왼쪽)을 전신복장노출법(오른쪽)으로 개선(전신복장노출시험법)



9. 해외 농업정보

◆ 중국 내 수입산 분유 수요 지속 증가

-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국산 분유의 안전성 불신이 이어지면서, 중국 내 수입산 분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해관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분유 총 수입량은 48만 4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42만톤)보다 14.2% 증가했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지난해 총 수입량 54만 7,000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6~8월 동안 중국의 분유 수입량은 각각 5만 9,700톤(4.78% ↓), 5만 8,000톤(2.85% ↓), 5만 4,300톤(6.38% ↓)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수입식품 관리 통지 영향으로, 수입산 유제품(분유·액체우유 포함)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엄격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는 중국 해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분유 수입물량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전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중국의 '이태 정책(아이를 둘째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한 것)'을 공표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 내 수입산 분유의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aT 상하이지사는 현재 중국 분유시장에 호주·유럽·미국 등 서양 분유 소비량이 많지만, 중국인의 체질과 한국인의 체질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 분유가 중국인의 체질에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중국 내 우리 분유 소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촌진흥청, 파라과이에 KOPIA 시범마을 출범식 개최

- 참깨 시범마을을 통해 파라과이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다 -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 파라과이센터는 파라과이 농업 연구청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참깨 우량 계통을 도입해 현지 적응성이 뛰어나고 수량성이 높은 계통을 선발했다.
- 선발한 계통은 생산량이 ha당 762kg으로 기존 참깨 품종과 비교해 거둘 수 있는 양이 25% 이상 많다. 이 품종은 2015년에 파라과이의 품종등록기관(SENAVE)에 정식 등록했다.
- KOPIA 파라과이 센터는 수량성이 높고 현지 적응성이 뛰어난 종자를 소규모 참깨 경작 농가에 보급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산페드로주 와자비 등 4마을을 대상으로 참깨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는 173농가 240ha에서 새 품종 종자를 파종하고, 수확 뒤 이듬해에 종자 파종량의 확대 보급을 통해 재배면적을 늘려, 2018년에는 600농가 6,000ha까지 넓힐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파라과이 마을 지도자를 해마다 한국으로 초청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참깨 전문가를 현지에 머물게 해 농업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 또한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자조금 조성과 참깨 생산자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황정환 기술협력국장은 “KOPIA 파라과이센터의 참깨 시범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파라과이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0. 31.(시카고 선물거래소)

주간 최고 가격을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 등으로 다시 하락한 곡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 구분 | 기준일 ('16.10.28) | 전일대비 | 전월평균 ('16.9) | 2015 평균 |
|-----|--------------------|-------|-----------------|------------|
| 밀 | 150.06 | ▼1.4% | 144 | 186 |
| 옥수수 | 139.76 | ▼0.7% | 129 | 148 |
| 대두 | 371.84 | ▼0.2% | 356 | 347 |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4% 하락 마감하였음. 지난 주간 수출 판매가 예상보다 많은 수준을 기록하며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풍부한 국제 밀 공급량이 상승세를 제한하며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목요일 한주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 초반 다시 하락하였음. 현재 미국의 수확이 진행 중인 부분과 지난 한 주간 수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들이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중국의 최대 옥수수 재배 지방에서는 곡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가공업자들에게 톤 당 2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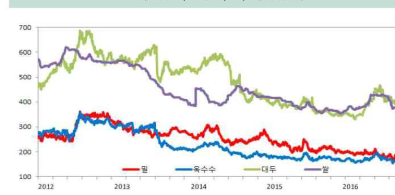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최근 두 달이래 최고 가격을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으로 전일 대비 다시 하락하였음. 대두박 또한 초반 2세션 동안은 상승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장 마지막 다시 하락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는 강한 매세 및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해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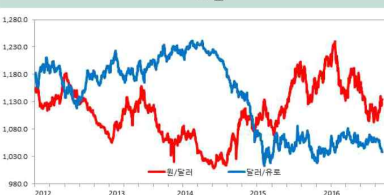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만 대두 및 옥수수 수출 프리미엄은 건조한 수출 수요 및 CIF barge price 상승으로 보합세.
- 28일 국제유가는 OPEC 감산 협의 난항 등으로 하락했고, 미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미 달러화 약세 등은 하락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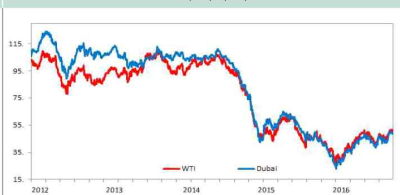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 곡물수출가격 (FOB) | 구분 | 기준일 | 전일대비 | 구분 | 기준일 | 전일대비 |
|-----------------|-----|-----|-------|------|-------|---------------|
| | 밀 | 185 | - | | 원/달러 | 1,140.2 ▲0.7% |
| | 옥수수 | 171 | ▲1.2% | | 달러/유로 | 1.0896 ▼0.1% |
| | 대두 | 399 | ▲0.3% | 국제유가 | WTI | 48.70 ▼2.1% |
| | 쌀 | 356 | - | | Dubai | 48.40 ▲0.5% |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0.27(수출가격), '16.10.28(환율), '16.10.2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곡성 박희애 농가,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통령상

- 전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19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박희애 농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1년 동안 한우개량에 투자한 노력에 대해 농가가 보상받는 축제의 장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올해 한우능력평가 대회는 총 198농가(농가당 1두)가 참여해 체외 및 외모심사에 이어 도축, 최종평가 결과, 곡성군 박희애 농가가 출품한 한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출품축은 출하체중 705kg, 도체중 442kg으로 경매단가가 5천 3백 4만원(12만원/kg)으로 낙찰돼 일반 한우고기의 약 7배가 넘는 가격을 받았다.
- 이번 능력평가대회에서 입상한 개체는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전시행사와 시식회를 계획하고 있다.
- 전남의 한우 농가들은 이같이 매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는데, 2012년에는 영암군 서승민씨가 대통령상을, 2013년과 2014년에 영암군 조형일씨와 고흥군 류중원씨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전남산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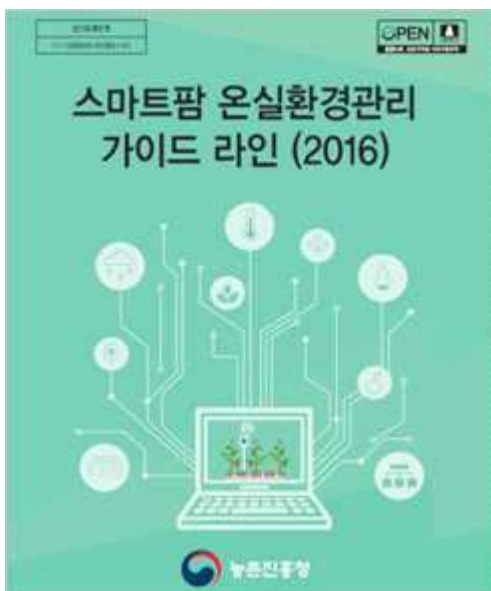
■ '스마트팜 온실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ICT 기반 스마트 온실에서 작물에 따른 환경 관리를 시설원에 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온실 환경관리 가이드라인(2016)' 개정판 책자를 발간했다.
- 책은 시설원에 환경관리, 작물별 환경관리 가이드라인과 요약 총 3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 스마트 온실 환경관리 가이드 편에서는 시설원에 최신기술을 요약 정리했고,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과 최신 개발기술을 소개했다.
- 시설원에 환경관리 편에서는 온실 내 생육중인 작물에서 필수 요소인 빛 환경, 환기, 냉난방, 탄산가스, 관수 및 양액공급,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제어까지 최근 개발한 기술을 정리했다. 또한 겨울철 에너지 절감기술과 주요 병해충 예찰 및 관리기술을 추가해 보다 알차게 구성했다.
- 작물별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편에서는 기존의 토마토·착색단고추·딸기·국화 4작물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완했고 오이와 호접란 2작물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 이 책자는 스마트 온실 대상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055-580-5525)로 문의하면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 배부한다.
-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http://lib.rda.go.kr>)에 PDF 파일을 올려놓을 예정이다.

□ '2016 가축개량 관련자료' 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한 해 동안의 가축개량 성과와 경제적 가치, 주요 실적 등을 담은 '2016 가축개량 관련자료'를 발간했다.
- 책자는 가축개량 총론, 축종별 개량현황, 기타 개량자료로 구성했다.
- 가축개량 총론은 한우·젓소·돼지·닭의 개량 원리와 방법, 우량 씨수소·씨돼지·씨닭 선발 방법을 도표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축종별 개량 목표와 성과를 실었다.
- 축종별 개량현황은 1년 동안의 각 축종별 능력검정 자료와 등급 판정 결과, 개량농가 현황 등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 기타 개량자료에는 인공수정사업, 종축등록사업, 새 기술보급현황, 개량협의회 운영과 가축개량관련 축산법령 조문을 수록했다.
- 농촌진흥청은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과 가축개량기관에 배포하고, 11월 초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에서도 PDF 파일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0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